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3월 미 인플레 연율 3.3%…. 휘발유 가격 급등에
- Bloomberg: 오늘 발표 미 CPI 핵심 내용은?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지수, 몇주 사이에 최저치
- WSJ: 이란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여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미국 금융]
- Bloomberg: 이번주 미 주식 강세...오늘은 상승세 주춤
- Bloomberg: 미 채권 트레이더들, CPI 발표후 올해 금리 인하에 일부 베팅

[중동 위기]
- Bloomberg: 미국과 이란, 평화 회담전에 휴전 합의 대체로 유지

[주택]
- YahooFinance: 미 주택 시장, 동북부는 매도자 우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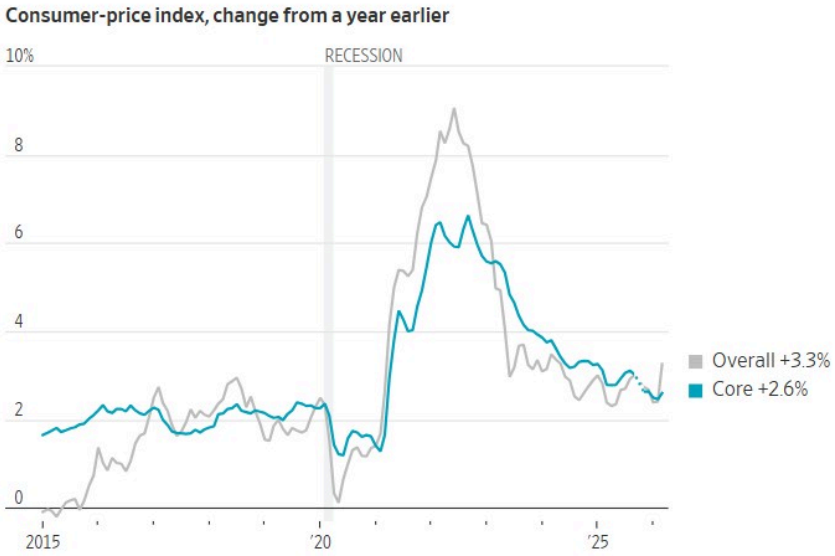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 WSJ: IMF 총재,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예상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Inflation Soared to 3.3% in March, Driven by Higher Gasoline Costs
3월 미 인플레 연율 3.3%…. 휘발유 가격 급등에

- 3월 미 소비자 가격(CPI)은 휘발유값 급등으로 상승했다.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국이 발표한 3월 물가는 작년 3월과 비교해 3.3%로 상승했다. 2월의 2.4%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3월 물가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희발유값은 이란 전쟁으로 말마암아 급증했다.
- 한편 다행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치 2.7%보다 낮은 2.6%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경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 근원 물가지수는 인플레의 근본적인 흐름을 더 잘 파악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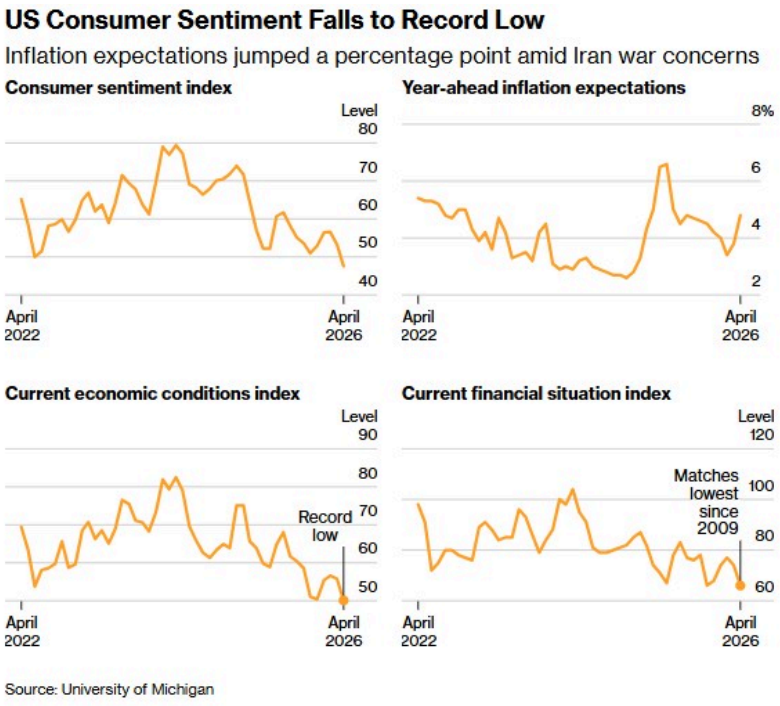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the US CPI Report for March
오늘 발표 미 CPI 핵심 내용은?

-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 가격 지수는 2월보다 0.9%나 상승해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유값 폭등 때문이다.
- 다행히 에너지와 물가를 제외한 핵심 CPI는 2월과 3월에 각각 0.2% 상승해 전문가들의 0.3%에 못미쳤다.
- 한편 일부 품목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때문에 관세 압력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가정용 가구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 영상 및 음향 제품은 0.8% 하락했다. 반면 의류 가격은 1.0% 상승했다.

기사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Drops to Record Low on Price Concerns
미 소비자 심리지수, 몇주 사이에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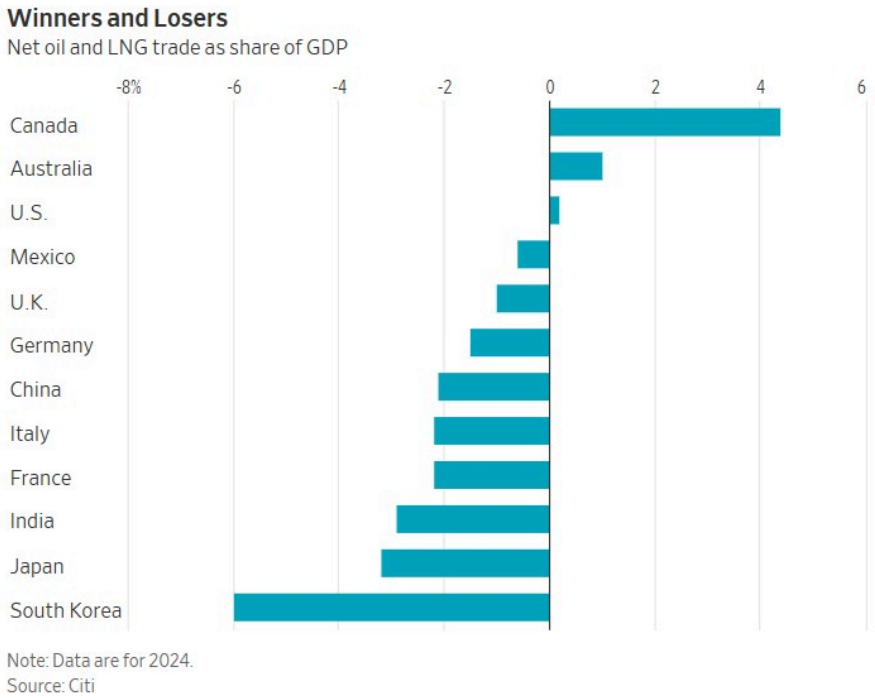
- 미 소비자 심리는 최근 몇 주 사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미시간 대학교가 오늘 금요일 발표한 예비치인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7.6으로, 3월의 53.3에서 하락했다. 조사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이는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 소비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물가가 연율 4.8%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3월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던 1년 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기사

WSJ: The Iran War Is Making the American Economy More Dominant Than Ever
이란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여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 트럼프가 동맹국을 희생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이란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 높은 휘발유 가격에도 미국 경제는 견조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급등하고 연료 절약과 함께 경제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 씨티그룹은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반면에 미국은 0.1%포인트만 하향 조정했다. 이는 유럽이 석유·LNG의 순수입(GDP의 1~2%)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순 수출이 GDP의 0.2%를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Set for Best Week Since May Before US Talks
이번주 미 주식 강세...오늘은 상승세 주춤

-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첫 인플레 지표는 예상과 부합하며, 이번 주말 예정된 미국·이란 평화 회담을 앞두고 오늘 금요일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 소비자물가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에 S&P 500은 5월 이후 최고 주간 성과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주 주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오늘 금요일 나스닥은 0.72%(22,953), S&P 500은 0.2% (6.840) 각각 상승세를 보이다가 12::26pm 현재 오일가 상승으로 싱숭세가 주춤, 각각 플러스 0.3%, 마이너스 0.1%로 거래되고 있다.
-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으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2026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유가는 배럴당 약 98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
- Annex Wealth Management는 “고유가가 아직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 신호는 없다”며 “기업들이 초기에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시간이 지나며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Bloomberg: Bond Traders Cling to Bets on a Fed Rate Cut This Year After CPI
미 채권 트레이더들, CPI 발표후 올해 금리 인하에 일부 베팅

- 미 채권 트레이더들은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 3월 미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유지했다.
- 금리 스와프 시장에서는 올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약 25%로 반영했으며, 이는 이전보다 약간 낮아진 수준이다. 여전히 일부 금리 인하 기대

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국채는 오늘 CPI 보고서 이후 약세를 보이며 전체 장단기 만기에서 금리가 2bp 상승했다.
- Mischler Financial Group는 “다음 달 물가 지표는 투자자와 연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US, Iran Stake Out Positions Ahead of Peace Talks
미국과 이란, 평화 회담전에 휴전 합의 대체로 유지

- 미국-이란 휴전 합의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란 대표단은 금요일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예정이다.
- 밴스 부통령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항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주택]

YahooFinancew: Buyers' markets dominate in Florida, while sellers still have upper hand in Northeast
미 주택 시장, 동북부는 매도자 우위 시장

- 미 주요 대도시의 60% 이상이 봄 주택 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매수자 우위이거나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가 비슷한 상황이다.
- Realtor.com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지역인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어 오스틴, 잭슨빌, 올랜도, 마이애미, 탬파가 대표적이며 애틀랜타, 내슈빌, 리버사이드도 같은 흐름이다.
- 반면에 약 4분의 1의 도시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주로 북동부와 중서부에 집중돼 있다.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버지니아 비치 등이 강한 매도자 우위를 보인다.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도 여전히 매도자 우위로, 북캘리포니아 AI 붐이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MF Chief Expects Slowdown on Global Economic Growth Even if Peace Is ‘Durable’
IMF 총재,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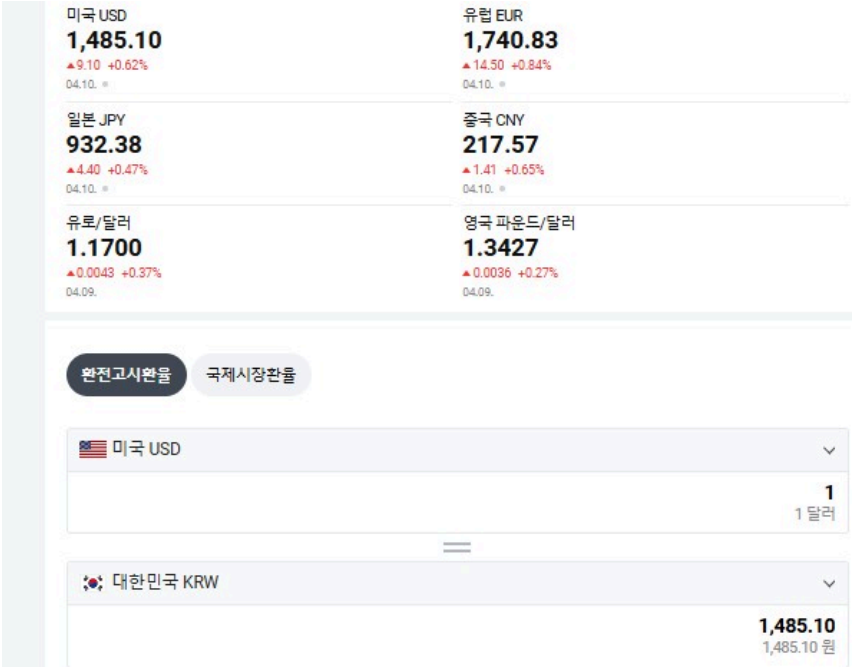
- IMF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분쟁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에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IMF는 전쟁의 파급 효과로 인해 국제 금융 지원 수요가 2백억~5백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7,924.40	-261.4	-0.54%
US 500	6,819.30	-5.3	-0.08%
Dow Jones	47,923.45	-262.35	-0.54%
S&P 500	6,818.90	-5.76	-0.08%
Nasdaq	22,892.83	+70.42	+0.31%
S&P 500 VIX	19.82	+0.33	+1.69%
Dollar Index	98.51	-0.079	-0.08%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